홈페이지 www.lighting-museum.com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235-48 Tel. 070-7780-8911

<지구초상화>는 경기도/양주시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으로 실시됩니다.

Earth Portrait - Drawing Today's Earth

2 Aug 2025 – 26 Oct 2025

지구초상화

Nicky Nodjoumi
Mark Dion
Shezad Dawood
Ali Cherri

김유정
김윤철
이혜선
장용선

경기도 Yangju 양주시

조명박물관 JOMYUNG MUSEUM

지구초상화 - 지구의 오늘을 그리다

2025. 8. 2. ~ 10. 26.

<지구초상화>는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를 예술가들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는 전시입니다. 지구는 현재 폭우와 한파, 폭설, 홍수,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과 기후난민의 발생, 동식물의 멸종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환경 파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 생태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며, 인간 사회와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몽골의 가뭄은 중국의 석탄 가스 소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난민 문제는 서구 사회의 거대 공장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은 브라질 아마존 숲의 파괴와 연결되어 있고, 이란 출신 작가 니키 노주미의 작품, 환경 시리즈의 시작은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나 식량, 인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 역시 기후 위기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구초상화>는 총 8인의 국내외 작가 - 니키 노주미(Nicky Nodjoumi), 마크 디온(Mark Dion), 셰자드 다우드(Shezad Dawood), 알리 체리(Ali Cherri), 김유정, 김윤철, 이혜선, 장용선 - 의 작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초상화가 단순히 한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 속에 담긴 고통과 슬픔, 그 사람의 삶을 담아내듯, 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각자의 독특한 시각과 예술적 방식으로 오늘날 지구의 고통과 상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상(初喪)에는 죽음의 의미 또한 존재합니다. 이 전시는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로 인해 사라져가는 지구 생태계와 생명을 향한 작가들의 연민과 애도가 함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구초상화> 전시를 통해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지구의 얼굴을 기억하고, 사라져 가는 오늘을 다시금 되새기고 그려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명박물관장 구안나

소멸의 모서를 새기다

캔버스 위의 정치,
권력과 폭력성의 관계를 말하다

니키 노주미 Nicky Nodjoumi
Oil on canvas
178 x 127cm 2018

Untitled III - From the Environmental Series

Untitled III - From the Environmental Series

니키 노주미의 <무제 3 - 환경 시리즈>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2017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할 때 시작된 작업이다. 니키 노주미는 트럼프가 "기후 온난화는 허구다. 환경이 위험에 처해져 있지 않다"라고 발언한 것을 듣고, 그 말이 허구이며, 실제로 환경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시리즈를 시작하였다. 이 작품은 자연 파괴가 정치권력에 의해 어떻게 방조되고 조장되는지를 강하게 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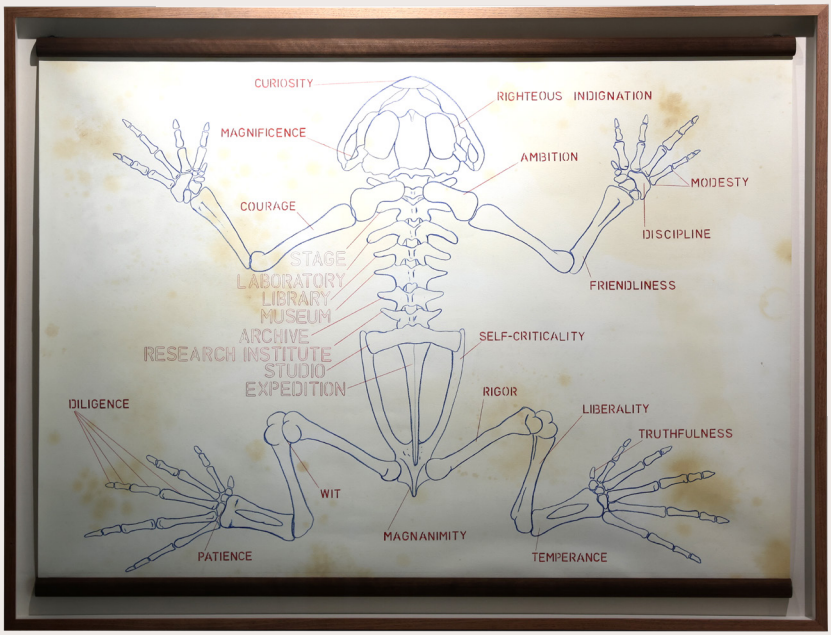
작품의 정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홀로 서 있는 식물의 인상이 강렬하다. 식물은 군데군데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마치 병들어 시들어가는 모습처럼도 보이고, 불타서 죽어가고 있는 형상처럼도 보인다. 이 작품 속 식물이 표상하는 것은 작가가 우주와 자연에 대해 갖는 경외심과 존중이며, 그것이 처한 위험과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재생하는 힘에 대한 열정이다. 그림 중앙을 가득 메운 식물의 형상은 자연의 일부로서 상처받고 다친 몸을 일으켜 다시 일어나는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니키 노주미(Nicky Nodjoumi_이란_1941)는 권력과 폭력, 사회적 불평등, 환경 파괴의 정치적 맥락 등을 풍자와 상징이 가득한 회화로 풀어내는 이란 출신의 작가이다. 그는 전쟁과 폭력뿐 아니라 환경적 불평등, 자연 훼손,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까지 인간 삶의 여러 층위를 그려낸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삶, 환경, 그리고 정치적 현실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회와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한다.

"나에게 단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권력관계이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간혹 정치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남녀관계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또 때로는 동물들 혹은 그 모든 사물들의 조합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살짝 비틀어보자. 문제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권력을 쥐게 되면 무엇이 되었든 나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한다. 내 그림들은 대체로 권력을 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나라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선동을 일삼으며 위선적으로 된다."

- Nicky Nodjoumi -

분류된 자연, 해체된 질서



Biology Classroom Frog's
Virtue and Research Utopia

마크 디온 Mark Dion
color pencil on tea-stained arches
watercolor paper
113.5 x 154cm 2021

Biology Classroom Frog's Virtue and Research Utopia

<생물학 교실 개구리의 미덕과 리서치 유토피아>는 생물 수업에서 흔히 하던 개구리 해부를 떠올리게 한다. 개구리는 오랫동안 과학 교육에서 사용된 실험 재료로, 학생들은 이를 통해 해부학적 구조를 배운다. 마크 디온은 해부된 개구리의 뼈 위에 '호기심', '용기', '진실', '관용', '절제' 등의 인간의 덕목을 적었다. 이는 개구리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과학적 탐구의 중요한 매개체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자연을 소비하고 해체하는 인간의 태도를 비판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작가는 개구리 해부가 교육적 목적을 지닌 행위임과 동시에, 동물을 도구화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과학 탐구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언제나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리서치 유토피아'는 과학자의 이상적 연구 환경을 뜻하지만, 그 이상은 자연을 정복하고 샘플링하며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마크 디온은 과학이 자연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자연을 착취하는 양면성을 지닌다고 말한다. 이 작품에서 '유토피아'는 단순한 낙원이 아니라, 과학이 지닌 윤리적 긴장과 도덕적 모순을 응축한 아이러니한 공간으로 제시된다. 이 작품은 생물 교육과 현대 과학에 숨겨진 윤리적 문제를 섬세하게 드러내며, 우리가 '탐구'라는 이름 아래 무심히 지나쳐온 존재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마크 디온(Mark Dion_미국_1961)은 과학적 탐구와 박물관적 전시 방식을 차용하여, 인간의 자연 인식 방식과 지식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작가이다. 그는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환경을 주제로 조각과 설치미술을 제작하는 현대미술가이자 환경운동가이다. 과학, 역사, 환경 등을 탐구하는 그의 작업은 컨셉추얼 아트와 설치미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연사 박물관, 과학 연구, 박제된 동물, 수집품 등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는 인간이 자연을 분류하고 해석하는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연사 박물관의 전시 방식을 재현하거나 해체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구성한다.

기존 박물관이 "객관적인 자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마크 디온은 예술적 개입을 통해 환경과학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그의 작업은 단순히 '환경 보호'라는 메시지를 넘어서, 환경을 다루는 인간의 태도 자체를 문제 삼고, 우리가 자연과 맺는 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마크 디온은 전시되고 수집된 자연 뒤에 숨겨진 권력과 문화적 맥락에 주목하며,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보아 왔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모든 것이 연결된 생태적 세계

Wallet in dark leather with "100% Pure Leather" mark, containing discoloured passport photos

셰자드 다우드 Shezad Dawood
Mixed media on fortuny textile
190 x 160cm 2017

Wallet in dark leather with "100% Pure Leather" mark, containing discoloured passport photos

<변색된 여권 사진이 있는 "100% 순수 가죽" 마크의 짙은 색 가죽 지갑>이라는 이 작품은 베네치아의 전통적인 화려한 수공예 천 위에 람페두사섬(Lampedusa)으로 가다가 바다에서 배가 전복되어 사망한 난민들의 소지품을 그린 것이다. 이를 위해 베네치아의 전통 직물 제작사인 포르투니(Fortuny)와 난민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바다에서 실종한 이들의 소지품을 보관하고 있던 라바노프(Labanof)와의 협업이 이루어졌다.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지중해에서 배가 뒤집혀 모두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작가는 이들의 항해 경로에 있는 수중 돌출부에 도달하는 태양의 복사열이 조류의 변화를 야기해 매우 위험한 소용돌이를 일으킨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해양학과 이주, 난민, 태양의 흑점 폭발과 전통 직물 공예, 비가시적이며 초국가적인 권력과 기후 변화, 생물학 등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실들 간의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작품의 실종자 소지품은 우리의 생명과 현실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나타내고 현재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실 등을 드러낸다. 이 작품은 현시대가 마주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뿐만 아니라 전체 생물권에 영향을 미치는 더 넓은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셰자드 다우드는 생명의 위태로움과 개인의 흔적을 통해,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과 생태계 속 인간의 위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바다에 가라앉은 것은 단지 지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무심히 지나친 생명의 무게, 기후 변화가 낳은 생태계 파괴의 현실인 것은 아닐까?

셰자드 다우드(Shezad Dawood_영국_1974)는 영상, 디지털 미디어, 조각, 직물 등을 결합해 생태, 역사, 그리고 상상의 미래를 엮어내는 서사 중심의 작업을 선보이는 작가이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 해양 생태계의 변화, 인간과 환경 사이의 보이지 않는 구조를 드러내며, 과학과 신화, 기억과 자료를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예술적 상상력을 확장시킨다. 그의 작업은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다시 인간 사회와 정체성에 어떤 방식으로 되돌아오는지를 시각화한다. 특히 난민, 해양 생태, 기후 위기, 탈식민주의,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 등 다양한 이슈들이 실제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예술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모든 것이 연결된 생태적 세계'라는 감각을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 있다. 셰자드 다우드의 작업은 환경의 변화가 인간의 삶과 정체성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사유하게 만든다.

소멸의 묘비를 새기다

Dead Insid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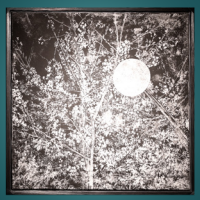
알리 체리의 <Dead Inside>시리즈는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엇이며, 생명의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내부적 붕괴일 수 있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죽음은 외부에서 침입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됨을 암시한다. 알리 체리에게 있어 이 죽은 새들은 레바논 사회의 갈등과 고통을 은유하는 동시에, 자연의 파괴와 생태계의 위기를 암시하고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와 환경재난을 시각적으로 증언하는 존재이다. 작품 속 새들은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기와 무관심이 초래한 생태계 붕괴의 상징이다. 새들의 멸종을 유발하는 환경공해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에서 제기된 농약 DDT의 사용이다. 그녀는 『침묵의 봄』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독성물질로 인해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어떤 생명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봄이 오는 날을 맞이할 수 있음을 일찍이 경고한 바 있다. 오늘날 새들은, 더 다양한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 철새들이 밤하늘을 비추는 과도한 인공조명에 길을 잃고 충돌사고를 당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거나, 초고층 빌딩의 유리창에 부딪혀 집단 폐사하는 일은 이제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일상이 되었다. 이 외에도 서식지 파괴, 기후 변화, 플라스틱 오염, 소음공해 등도 조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새들의 침묵을 통해 인간 내면의 침묵까지 들여다보게 만들며, 죽어가는 자연을 향한 연민과 책임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Dead Inside(1)

알리 체리 Ali Cherri
Twelve drawings, watercolor and graphite on paper
48.3 x 61.1cm(x12) 2021

알리 체리(Ali Cherri_레바논_1976)는 역사와 신화, 생태적 변화와 환경 파괴를 조형적이면서도 서사적인 방식으로 탐구하는 작가이다. 그는 시각예술가이자 영화감독으로, 약 30년 동안 영화, 퍼포먼스, 조각, 드로잉, 설치 등 다양한 형식의 작업을 펼쳐 왔으며, 중동의 정치·사회적 현실과 생태, 역사적 맥락을 내러티브 중심의 예술 언어로 이야기해 왔다. 그의 주요 작업 주제는 역사와 신화, 생태 변화와 환경 파괴이며, 레바논 사회의 내전, 재난, 식민지 역사, 기후 변화, 고고학적 유산 등을 중심으로 잊혀진 기억과 장소의 의미를 발굴하고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감정, 역사, 공간, 기억이 교차하는 예술 세계를 구축하며, 문화적 정체성과 집단 기억의 본질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그는 인간의 손에서 벗어난 유물과 유적, 그리고 이를 둘러싼 보존과 전시의 정치성과 권력 구조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동시에, 인간에 의해 파괴된 자연의 비극, 생명의 상실을 시적 감수성으로 응시하며, 예술을 통해 그 상처를 기록한다. 그의 작업은 인간 문명의 폭력성과 자연 파괴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고, 그 속에는 슬픔과 애도, 그리고 회복을 향한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인간과 식물 - 그 긴장과 공생의 관계



달을 삼킨 섬, 떠다니는 낮
The Island That Swallowed the Moon, The Drifting Day

이식된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공 환경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식물의 존재는 인간과 자연 간의 유기적 관계, 생태적 연대, 그리고 공존의 가능성을 환기시킨다. 도시 속 플랜테리어에 배치된 식물들은 치유와 안정을 위한 도구인 동시에, 시각적 장식으로 기능한다. 다양한 기후와 환경에서 이식된 식물들이 인공조명 아래서 생장을 이어가는 모습은 자연과 문명 사이의 경계를 드러내는 조형적 요소로 기능하며, 삶의 지속성과 회복력에 대한 은유로 작용한다. 전통적인 프레스코 기법을 적용하여 습윤한 석회층 위에 안료를 올린 뒤 조각칼로 반복적으로 표면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색을 입히기보다는 시간을 새기는 감각으로 심리적 풍경을 구축한다. 이러한 방식은 흔적과 층위를 드러내며, 시간성과 감정의 깊이를 동시에 담아낸다. 전통 기법을 동시대적으로 해석하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자연성과 생존의 단면을 기록함으로써, 생태적 감각과 삶의 흔적을 담아내고자 한다.

밤과 낮의 길이
The Length of Night and Day

선각적 텍스처로 드러나는 프레스코화 <밤과 낮의 길이>는 누구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밤 풍경의 모습이다. 나무 사이 뜬 달처럼 인공조명이 지속적으로 비추며 낮의 연속으로 만물이 광합성을 쉬고 모두가 잠들어야 할 시간에도 쉼이 없는, 자연의 입장에서 볼 때 아름답게 비추는 빛의 이중성을 표현하였다.

모서리 숨 Corner Breath

한때 인간의 삶 속에서 쓰임을 다한 무용한 물건들이 빛과 인조 식물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초록 식물과 회색 음영의 조화는 동양적 미감을 자아내며, 그림자의 농담은 새벽 산수의 풍경을 연상시킨다. 순환과 재탄생의 흐름 속에서 완성된 이 공간은 치유의 빛과 음영으로 감각을 자극한다. 유기적인 형상과 짙은 푸름은 숲과 안개의 잔상을 떠올리게 하며, 시선의 깊이를 확장한다. '벽'은 차단이 아닌 감각의 유입 장치로 작용하며, 라이트박스 속 푸른 흔적은 시간의 밀도를 담아 고요한 내면의 감각을 환기시킨다.

김유정(Kim Yujung_한국_1974)은 인간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자연, 특히 식물과 인간 사이의 긴장과 공생의 흔적을 조형적으로 탐구하는 시각예술가이다. 작가는 프레스코화를 중심으로 틸란드시아 식물 설치, 라이트박스 입체 작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인간이 구축한 사물에 식물적 생명성을 이식함으로써 자연과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을 시각화해 왔다. 작업은 식물의 생명력과 자생성, 그리고 그것이 문명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인간에 의해 이식된 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공간을 점유해 가는 과정은 식물의 사회화 양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 존재의 생태적 위치를 성찰하게 한다. 수집된 인공 오브제를 틸란드시아로 덮거나, 전통 프레스코 기법을 수용해 회벽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식물이 인공 구조를 잠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장소 특정적 식물 설치로 구현한다. 이러한 작업은 인공과 자연, 문명과 생명 사이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디스토피아적 자연 회귀와 식물의 자생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동시에 인간의 자연 지배 욕망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생명의 유기적 연대와 공존 가능성에 대한 사유를 제안한다.

달을 삼킨 섬, 떠다니는 낮
The Island That Swallowed the Moon, The Drifting Day

김유정 Kim Yujung
fresco, scratch on lime wall
115.2 x 65.2cm(x3) 2023

밤과 낮의 길이
The Length of Night and Day

김유정 Kim Yujung
fresco, scratch on lime Wall
50.3 x 50.3cm 2022

모서리 숨 Corner Breath

김유정 Kim Yujung
폐제품 재활용_KH필룩스 고정형 LED 등기구, 인조식물
120 x 30cm(x5) 2024

모든 것이 동등하게 공존하는 세계

BLUEPRINT(#TRI_PILLARS_MORPHO)

김윤철 Kim Yunchul
drawing on blueprint
119 x 84cm 2017

BLUEPRINT(#TRI_PILLARS_MORPHO)

김윤철 작가의 창의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는 <Blueprint (#Tri_pillars_morpho)>는 작품 <Triaxial Pillar (2010~2011)>의 도면인 청사진 위에 유체역학적인 상상과 사유들을 드로잉한 것으로, 작가의 상상과 실천이 응축된 사유의 흔적을 담고 있다. 이 작업의 복잡한 드로잉은 물리적 형태 이전의 상상의 세계로부터 비롯된 예술가의 과도기적 과정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작가의 과학적 기계장치 작업의 도면이자 작가 내면의 세계가 담긴 작업이고, 그 자체로서 다른 작품에 대한 단서가 되는 작품이다. 김윤철 작가의 작업에서 인간과 비인간, 기계와 물질, 질료는 지각할 수 없는 사건을 전개하는 주체이자 능동적 행위자다. "지금의 시대는 인간이 중심이 아닌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것은 반인간주의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인간도 설 자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나는 사물이 주체가 되어 공존하는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그의 작품은 인간과 비인간, 기계와 물질 등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얽혀 있는 세계의 여러 층위의 결들을 가시화한다. 작품 <Blueprint (#Tri_pillars_morpho)>는 작가의 그러한 사상과 철학적, 미학적 성찰, 아이디어에 대한 탐구의 과정이 담겨 있다.

김윤철(Yunchul Kim_한국_1970)은 설치, 드로잉, 사운드, 텍스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동하는 예술가이자 전자 음악 작곡가로, 'Transmatter'를 탐구하고 무대화한다. 그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학, 과학, 기술, 음악, 철학, 시, 우주론을 자신의 작업에 접목하여 물질과 물질이 얽힌 우주를 풀어낸다. 그의 작업은 비인간적인 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사물들이 유기체적으로 만나는 다양한 형이상학적 지점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지각과 경험의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실재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창조하는 데 집중하는 작가이다. 음향, 연금술, 천체물리학, 유체역학 등의 개념이 얽힌 그의 작업은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는 동시에, 무한 확장되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한다. 작가가 상상하는 물질의 세계를 구현하는 그의 작품은 문화 이전 혹은 언어 이전의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바다에서 온 것들이 다시 쓰이기까지

이혜선 Lee Hyesun
바닷가에서 수집한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
금속, LED, 가변설치 2025

Remains of the Sea, Reimagined

바다에서 온 것들이 다시 쓰이기까지
Remains of the Sea, Reimagined

이혜선 작가의 작업은 바다에서 시작한다. 파도에 밀려 해변으로 떠내려온 부표와 낚시찌, 그리고 무수히 작은 플라스틱 파편들. 이 물건들은 과거에는 분명한 쓰임과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바다 위를 떠돌며 잊혀진 존재가 되어 해변으로 떠밀려왔다. 작가는 이 잊혀진 것들에 주목한다. 직접 해변으로 나가, 시간이 만들어낸 빛바램과 풍화의 흔적이 깊게 배인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수집한다. 수집한 각 조각은 저마다의 시간을 품고 있다. 그 시간의 흔적들은 그 자체로 바다와 햇빛, 시간의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플라스틱들은 작가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고, 빛을 입히는 과정을 통해 바다 위에 선박들을 비춰주는 등대처럼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은 하나뿐인 조명 오브제로 탈바꿈되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작은 순환이며, 버려지고 잊혀진 것들에게 다시 쓰임과 의미를 부여하는 '조용한 실천'이다. 이 공간은 그러한 과정이 담긴 작가의 책상이자 작업실이다. 바다에서 해변으로, 그리고 작업실로 이어진 여정을 따라 옮겨온 플라스틱 조각들이 다시 의미를 획득하고, 새로운 쓰임의 가능성을 탐색해 가는 과정을 관람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혜선(Lee Hyesun_한국_1988)은 2016년 제주 바다에서 비치코밍(beachcombing)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활용한 전시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 바다에서 밀려온 폐기물에 주목하게 되었다. 작가는 바다에 떠밀려온 부표, 낚시찌, 그물 등의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들을 수집해 작업의 재료로 삼았고, 이러한 재료들은 새로운 형태와 기능을 부여받으며, 다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었다. 쓸모를 잃고 버려진 것들이 다시 쓰이고, 소외된 사물이 다른 관계 안에서 의미를 회복하는 과정은 작가가 지속적으로 지향해온 작업 방식이다. 작가는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제거된 물질들을 다시 사회적, 미적 맥락 안으로 끌어들이며, 이들을 통해 우리가 소비하고 폐기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혜선의 작업 방식은 작가만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응답일 뿐 아니라, 사물과 사람, 의미와 시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사유하게 만드는 동시대적 제안이다. 작가는 예술을 통해 버려진 것들의 의미를 확장하고, 이를 조형적으로 풀어내며, 소비되는 사물의 존재가 다시 순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Treasure Your Life

박물관에 강아지풀 유물이 전시되었다. 전시장 가운데 가볍게 정지된 채 매달려 있는 강아지풀 조형체를 박물관 전시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멋진 장식이 있는 유물장에 설치하였다. 강아지풀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들풀 중 하나로, 늘 우리 발밑에서 밟히고 제초되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식물이다. 그 강아지풀로 만든 작품이 마치 보물처럼 반짝이며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그 모습을 관람하는 인간들의 시선과 태도가 아이러니한, 우리 인간의 본모습을 보게 하는 의도가 담긴 작품이다.

채집된 조각 Collected Shards

인간은 본래 풀들이 자리 잡고 생명을 영위하던 터전 위에 문명을 세운다. 초고층 건물을 끝없이 올리고 멀게만 느껴졌던 섬과 섬을 잇고 산을 헐고 강을 메꾸고 들판을 정돈하며 도시는 견고해져 왔다. 도시를 가장 극적으로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 작가는 그것이 육중한 콘크리트라고 한다. 도시를 짓는데 첨병 같은 역할을 했을 도로. 그 도로를 표현한 작품으로, "그 길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를 고민한 작가의 작업이다. 바닥에 깔린 콘크리트 블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석처럼 느껴지는 원주민들의 흔적이 보인다. 견고할 것 같던 블록 사이는 틈이 가서, 언제든 부서질 것 같다. 블록과 블록 사이, 간헐적으로 드러나는 풀 조각들은 치열하게 살아온 생의 흔적을 보여주고, 그 찬란하고도 끈질긴 생명력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만천하에 드러낸다.

장용선 (Jang Yongsun_한국_1980)은 금속, 강아지풀, 소뼈 등의 자연 재료를 활용해 조각, 설치, 사진 등의 다양한 매체로 작업해 온 작가이다. 그는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중심에 두고, 재료의 물성과 감각을 통해 생명의 본질을 탐구한다. 그의 작업은 생명에 대한 사유와 탐구의 끊임없는 과정으로 그것은 재료, 소재, 관점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작가 작업 세계의 근원이자 포괄적 주제이다. 특히, 도시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잡초와 강아지풀은 그의 작업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한다. 늘 제초되고 잊혀지지만 스스로의 방식으로 생존하는 이 식물들은 고유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생명과 존재의 존엄성과 자연의 회복력을 조명한다. 그의 작품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자연과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기게 하고,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가치를 환기시킨다.

생명의 본질을 질문하고 탐구하다

채집된 조각
Collected Shards

장용선 Jang Yongsun
제초된 각종 들풀을 넣어 반죽한 시멘트 캐스팅 블록
가변설치 2023

Treasure Your Life

장용선 Jang Yongsun
강아지풀, LED 디밍조명, 아크릴박스, 나무좌대
26 x 26 x H120cm 2020

밤의 초상 - 우리가 기록한 빛공해

연계 전시

2025.8.2. ~ 10.26.

이 전시는 주 전시인 <지구초상화 - 지구의 오늘을 그리다>의 연계 전시이다. 2005년부터 이어져온 조명박물관의 <빛공해 공모전>은 지난 20년간 3만 5천여 점의 작품과 921점의 수상작을 통해, 우리 일상의 빛공해를 기록해왔다. 또한, 2021년부터 시작된 <빛공해 백일장>에는 남녀노소 25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저마다의 시선으로 빛공해를 이야기해왔다.

이번 전시는 그 중에서, 시민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 96점과 백일장에 출품된 시 17편을 선별해 구성하였다. <밤의 초상 - 우리가 기록한 빛공해>는 우리 삶 속에 스며든 빛공해를, 우리의 눈으로 포착하고 기록하며, 그 언어로 이야기하는 전시이다.

우리가 마주한 빛공해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하늘과 바다, 땅과 공기까지 - 우리가 숨 쉬는 모든 곳에 공해가 가득한 시대. 달빛과 별빛은 어디쯤 숨어 있을까? 진정한 밤의 얼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까?

이 전시는 잃어버린 밤을 되찾기 위한,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연대의 기록이다.

지구별 예술가

연계 체험

2025.8.2. ~ 8.24.
매주 주말

Gardeners at the Museum : 틈새 생명 탁본 일기

일시 : 2025년 8월 2일 (토), 3일 (일) 14시 ~ 15시 30분
대상 : 7세 이상 (부모님 동반 참석 필수)
정원 : 가족 관람객 (20명 내외)
체험 : 도시화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나는 들풀을 관찰하고, 박물관 주변의 야생 식물을 채집해 식물 탁본으로 기록해본다. 참여 작가 김유정과 함께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본다.

반짝이는 밤, 사라진 친구들

일시 : 2025년 8월 9일 (토), 10일 (일) 14시 ~ 15시 30분
대상 : 7세 이상 (부모님 동반 참석 필수)
정원 : 가족 관람객 (20명 내외)
체험 : 빛공해 피해를 받는 다양한 동식물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주변의 생태계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본다. 빛공해 속에 사라져간 동식물 친구들의 모습을 직접 그려보며,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을 함께 이야기하고 실천 방법을 생각해본다.

사라지는 식물들, 우리가 지켜줄게

일시 : 2025년 8월 16일 (토), 17일 (일) 14시 ~ 15시 30분
대상 : 7세 이상 (부모님 동반 참석 필수)
정원 : 가족 관람객 (20명 내외)
체험 :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환경지표식물을 알아보고, 그중 하나인 <개구리발톱> 식물 키트를 직접 만들어 본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느끼며, 다양한 생물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연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구별 조명 가게

일시 : 2025년 8월 23일 (토), 24일 (일) 14시 ~ 15시 30분
대상 : 7세 이상 (부모님 동반 참석 필수)
정원 : 가족 관람객 (20명 내외)
체험 : 예술의 시선으로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다양한 환경 이슈를 함께 나눈다. 업사이클링 조명 만들기 체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실천 의식을 기르고,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직접 느껴본다.

신청 방법

사전 신청 - 구글폼 작성, 조명 박물관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신청

Gardeners at the Museum
: 틈새 생명 탁본 일기

반짝이는 밤, 사라진 친구들

사라지는 식물들, 우리가 지켜줄게

지구별 조명가게

연계 교육 2025년 8월 6일(수) / 8월 13일(수)

지구와 썸타는 사이
나와 멀고도 가까운 기후환경 이야기

일시 : 2025년 8월 6일 (수) 오후 1시 ~ 3시 현장 강의
대상 : 일반 성인, 대학생 등
강사 : 황상일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부장)
정원 : 20명 내외
내용 : '썸'과 '사랑'을 통해 지구와 나의 관계를 돌아보며, 지속가능발전과 여섯 번째 대멸종, 미래 시나리오를 함께 생각해 본다. 강의 후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태양광 캔라이트' 만들기로 실천을 이어간다.

알쏭달쏭 빛 + 공해
별이 사라지는 밤의 이야기

일시 : 2025년 8월 13일 (수) 온라인 강의
대상 : 어린이 및 일반
강사 : 안상경 (조명박물관 학예사)
내용 : 빛공해 공모전 수상작을 바탕으로, '빛공해'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빛은 과연 생명의 원천일까? 아니면 공해의 주범일까? 밤하늘에서 별이 사라지는 이유를 찾아보며, 알쏭달쏭하고도 이중적인 빛의 세계를 함께 탐험한다.

연계 키트 2025년 8월 2일 ~ 10월 26일

환경지표식물
개구리 발톱 키트 만들기

일시 : 2025년 8월 2일 ~ 10월 26일 (선착순 신청·배포)
대상 : 초·중·고등학생
내용 : '개구리발톱'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중 하나로, 기후 변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식물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야생화로, 개구리발톱이 자라는 위치, 개화 시기, 개체 수의 변화 등을 통해 환경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종이 키트로 개구리발톱을 만들어보며, 기후 변화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연계 시연 2025년 9월 20일 (토)

이혜선 작가 시연
바다 쓰레기, 예술이 되다

일시 : 2025년 9월 20일 (토) 오후 3시 ~ 5시
대상 : 관람객
시연 : 이혜선 작가
정원 : 100명 내외
내용 : <지구초상화> 참여 작가 이혜선이 바다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작업하는 과정을 시연한다. 현장에서 약 100명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버려진 것이 다시 쓰임을 얻는 순간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다.

연계 축제 2025년 9월 20일(토) 15:00 ~ 21:00

달잔치

자연의 밤을 즐기는 우리들의 축제

<달잔치>는 빛공해와 여러 환경 공해로 달빛과 별빛을 잃어가는 시대에, 자연의 빛을 즐기는 소소한 축제이다. <지구초상화>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인공조명을 최소화한 밤하늘 아래서 환경을 주제로 하는 잔치를 즐긴다.

*프로그램 : 그림자극, 야외극장, 그림자놀이, 환경 체험, 빛공해 포토존, 아나바다 마켓 등
*참여 단체 : 조명박물관, 극단 즐거운사람들, 양주시자원봉사센터, 양주시탄소중립센터 등
*신청 방법 : 조명박물관 홈페이지 사전 신청 (300명 인원 한정)